

KWDI

해외통신

2020년 9월 1차 (2020.9.1 ~ 9.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아일랜드 IRELAND

아일랜드, 출산율 감소와 비도시지역 여성의 임신·출산지원서비스 불균형 해소 위한 정책 개선 필요

곽 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유럽연합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의 2020년 7월 기준 발표에 따르면 아일랜드 출생아 수는 인구 1천 명당 2018년 12.5명, 2019년 12.1명, 2020년 1/4분기 11.7명으로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평균(2018년 9.7명, 2019년 9.5명)보다 훨씬 높지만,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처음 출산하는 여성 평균 연령은 31.4세로 증가추세이다.
- 아일랜드에서 임신이나 출산을 겪는 여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권익 활동을 추진해온 모성보건 서비스 개선 연합(Association for Improvements in the Maternity Services Ireland)의 크리샤 린치(Krysia Lynch) 대표는 2020년 8월 한 현지 언론 사설을 통해 아일랜드 도시와 농촌 간 모성 관련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비판했다.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임신부들은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러 가기 실질적으로 힘들고 서비스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 아일랜드 보건 서비스 전반을 관리하고 시행하는 보건당국인 Health Service Executive에서는 지역사회 조산사(self employed community midwife, SECM)에게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임신부가 원하면 집에서 무료로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출산(National Home Birth Services)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린치 박사는 가정출산 서비스도 더블린(Dublin)과 같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일랜드 일부 시골 지역에서는 조산사가 적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린치 박사는 조산사를 통한 가정출산, 산후 케어 서비스 등에 있어 여성들이 도시, 농촌 여부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다양한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아일랜드는 현재 영아 및 모성 제도(Infant and Maternity Scheme)를 통해 임신·출산 관련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거주 지역 내 모성보건 관할 보건소가 단독 또는 본인이 등록된 가정의학과 의사(GP) 및 컨설턴트(consultant)가 하나의 팀으로 조직되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민영건강보험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민간 모성 관련 전문가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참고자료

- Eurostat(2020.07.10.), "Live births and crude birth rate",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datasets/-/TPS00204> (접속일: 2020.09.08.)
- Health Services Executives(2020), "National Home Birth Services", <https://www.hse.ie/eng/services/list/3/maternity/homebirth-services.html> (접속일: 2020.09.08.)
- Irish Examiner(2020.08.28.), "Births in Ireland fall by 9.6% as deaths increase by 0.6%", <https://www.irishexaminer.com/news/arid-40039343.html> (접속일: 2020.09.08.)
- Krysia Lynch(2020.08.22.), "Opinion: 'For most women in rural Ireland there is no choice of maternity services'", <https://www.thejournal.ie/readme/maternity-services-choice-rural-ireland-5175007-Aug2020/> (접속일: 2020.09.08.)
- RTE(2020.09.01.), "Unpaid parental leave increases from today", <https://www.rte.ie/news/business/2020/0901/1162473-unpaid-parental-leave-increases-from-today/> (접속일: 2020.09.08.)

아일랜드 정부는 2016년, 처음으로 10개년 국가 모성 전략(National Maternity Strategy: Creating A Better Future Together 2016 – 2026)을 발표한 바 있다. 본 전략에서는 임신 및 산후 과정이 보다 안전하고 표준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앞으로 아일랜드 정부가 출산율 감소를 막고 최근 제기된 지역 간 모성보건 서비스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이행할지 주목할 만하다.

- The Government of Ireland(2016.02.22.), "National Maternity Strategy - Creating a Better Future Together 2016-2026", <https://www.gov.ie/en/publication/0ac5a8-national-maternity-strategy-creating-a-better-future-together-2016-2/> (접속일: 2020.09.08.)
- The Irish Times(2019.07.10.), "Ireland has highest birth rate and lowest death rate in EU", <https://www.irishtimes.com/news/ireland/irish-news/ireland-has-highest-birth-rate-and-lowest-death-rate-in-eu-1.3952983> (접속일: 2020.09.08.)

캐나다 CANADA



캐나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부부간 성별 임금 격차 전반적으로 증가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캐나다인 모두에게도 경제적 타격을 가져다주고 있다. 최근 공개된 연구에 따르면, 특히 부부간 성별 임금 격차에 매우 큰 부정적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7월 6일 캐나다 공공정책 (Canadian Public Policy)에 발표된 논문에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사회학과의 위관(Yue Qian) 교수와 실비아 풀러(Sylvia Fuller) 교수는 캐나다 통계청 고용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0세에서 12세 사이의 자녀를 둔 25세부터 54세 사이 부부들의 임금 격차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부부간의 성별 임금 격차는 팬데믹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미취학 자녀(0-6세)를 둔 부부보다 취학연령(6-12세)의 자녀를 둔 부부 사이에서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전자의 경우 부부간의 임금 격차는 팬데믹 전 1.0%p에서 2.5%p로 벌어졌으나 후자의 경우 팬데믹 전 0.8%p에서 7.8%p로 열 배 이상 늘어났다.

참고자료

- CTV News(2020.07.07.), "When it comes to going back to work, COVID-19 is impacting Canadian mothers more than fathers: study", <https://bc.ctvnews.ca/when-it-comes-to-going-back-to-work-covid-19-is-impacting-canadian-mothers-more-than-fathers-study-1.5014244> (접속일: 2020.09.10)

이 연구결과는 흔히 취학연령대 아동 자녀의 경우 부모, 특히 어머니의 돌봄이 덜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취학연령 자녀를 둔 여성들은 팬데믹에 의한 경제적 타격을 그나마 덜 받을 것이라는 예측에서 벗어난 결과이다. 연구진은 팬데믹은 이전부터 존재하던 성별 임금 격차(gender pay gap)의 구조적 요인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즉, 아버지들에 비해 어머니들의 임금이 더욱 심하게 타격을 받은 것은 여성들이 파트타임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전반적인 임금 격차 확대의 원인이며, 취학연령대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받은 타격 또한 3월 이후 학교들이 장시간 폐쇄됨에 따라 집에 머무는 자녀들을 위해 부모들이 돌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가정 내의 젠더 역학이 어머니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부모들의 교육 수준 또한 확대된 부부간 임금 격차에 유의미한 변수임을 밝혀냈다. 고학력 부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학력, 특히 고졸 이하의 학력에 취학연령의 자녀를 둔 부부들이 팬데믹 이후 가장 큰 임금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Qian, Yue & and Sylvia Fuller. (2020.08), "COVID-19 and the Gender Employment Gap among Parents of Young Children.", Canadian Public Policy, 46(S2), S89-S101. (접속일: 2020.09.10)

연구진은 이 연구가 남녀 구분할 것 없이 누구나 팬데믹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시각, 이른바 팬데믹이 젠더 이퀄라이저(gender equalizer)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캐나다의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섬에 따라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성별 임금 격차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회복 과정에서 정부가 돌봄을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결정적일 것임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취학연령 아동은 돌봄이 미취학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의 손길이 덜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인식 때문에 그간 캐나다의 아이 돌봄 정책이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연구결과는 팬데믹 상황과 이후의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에 있어 다른 시각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출산 후 감소하다가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다시 증가하여 자녀가 취학연령에 들어서면서 부부간 성별 임금 격차는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 연구결과는 팬데믹 상황에서 이러한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경험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 연령에 대한 돌봄 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야 성별 임금 격차가 효과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또한 장기적인 정책적 시사점으로 방과 후 그리고 방학 기간 동안 돌봄 지원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영국 UNITED KINGDOM



영국, 코로나19 봉쇄 이후 워킹맘 10명 중 5명, 정부 육아 서비스 부족으로 어려움 경험해 공공보육서비스 확대 필요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영국의 코로나19 봉쇄 이후 영국 워킹맘 10명 중 5명이 정부의 육아 서비스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다. 영국 여성단체들은 일하는 엄마의 경력 발전을 위해서라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적절한 육아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 영국 여성단체인 ‘Pregnant Then Screwed’가 영국 워킹맘 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15%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리 해고를 당했거나 직장을 잃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히, 정리 해고를 당한 응답자 중 46%가 정부의 육아지원 및 아이 돌봄 서비스 부족이 실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올해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된 해당 설문조사에는 영국 워킹맘과 임산부 등 총 1만 9천 950명이 참여했다.
- 📌 정리해고에서 살아남은 엄마들도 부족한 자녀 돌봄 서비스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전체 워킹맘 응답자 중 51%가 적절한 육아 지원을 받지 못해 일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 📌 2020년 8월 말부터 영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사무실 출근을 장려하고 있지만, 상당수 임산부 직장인들은 직장 내 감염 우려 때문에 사무실 출근을 꺼려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산부 응답자 중 46%가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코로나19에 감염될까봐)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답했고, 흑인, 아시아인, 소수 민족 출신 임산부의 경우 전체의 59%가 “사무실 출근이 불안하다”고 불안함을 느끼는 응답자 비율이 백인 임산부보다 13%나 높았다.
- 📌 최근 마리안 나이트(Marian Knight) 옥스퍼드 교수와 동료들이 발표한 영국의 또 다른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한 임산부의 절반 이상이 흑인, 아시아인, 소수 민족 출신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 영국에서 인종간 의료 격차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프리랜서 워킹맘들이 육아 서비스 부재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 프리랜서 워킹맘 중 74%가 육아 부담이 수입이 줄어든 주요 원인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44%의 프리랜서 워킹맘이 경제적인 이유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시설 이용을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맘들 중 33%가 육아 및 보육 시설 이용을 중단한 것과 비교하면 11% 이상 높은 수치다.
- 📌 Pregnant Then Screwed 설립자 겸 대표인 조엘리 브랜리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맘보다 프리랜서 워킹맘이 유치원 등 육아 시설 이용을 중단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이는 프리랜서 워킹맘이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 📌 한편, 영국 정부는 9월 가을 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해 공립 어린이집을 모두 열어 학생들을 받고 있다. 영국 교육부는 2020년 9월 1일 발표한 ‘가을학기 학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지침(What parents and carers need to know about early years providers, schools and colleges in the autumn term)’에 따르면 영국 교육부는 “육아 시설에 다니면 자녀들의 사회성 발달을 도울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원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육아 시설에 아이를 보낼 경우 2세 자녀를 둔 부모는 연간 평균 2500파운드(우리 돈 약 380만 원), 3~4세 자녀를 둔 부모는 연간 최대 5000파운드(760만 원)까지 교육비 혜택을 받는다.

참고자료

- Reuters(2020.07.26), “Lack of childcare found ‘destroying’ UK mothers’ careers amid COVID-19”,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women-careers/lack-of-childcare-found-destroying-uk-mothers-careers-amid-covid-19-idUSKCN24Q00Y> (접속일: 2020.09.09)
- Pregnant Then Screwed(2020.07.26), “Childcare, Covid and Career: The true scale of the crisis facing working mums”, <https://pregnantthenscrewed.com/childcare-covid-and-career> (접속일: 2020.09.09)
- Marian Knight DPhi(2020.05.11), “The UK Obstetric Surveillance System SARS-CoV-2 Infection in Pregnancy Collaborative Group”, <https://www.npeu.ox.ac.uk/downloads/files/ukoss/annual-reports/UKOSS%20COVID-19%20Paper%20pre-print%20draft%2011-05-20.pdf> (접속일: 2020.09.09)
- GOV.UK(2020.09.01), “What parents and carers need to know about early years providers, schools and colleges in the autumn ter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hat-parents-and-carers-need-to-know-about-early-years-providers-schools-and-colleges-during-the-coronavirus-covid-19-outbreak/what-parents-and-carers-need-to-know-about-early-years-providers-schools-and-colleges-in-the-autumn-term> (접속일: 2020.09.09)